

1998년

제2회 한국어능력시험 문제지 4급 표현 (어휘 · 문법, 쓰기)

유의사항 (Notice)

1. 시험 시작 지시가 있을 때까지 문제지를 열지 마십시오.
Do not open the test booklet until you are told to do so by the supervisor/
room proctor.
2. 이 문제지를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Do not take the test booklet and answer sheet with you.
3. 수험번호와 이름은 수험표와 같도록 정확하게 적어 주십시오.
Enter the examinee's registration number and name that appears on your
admission ticket.
4. 답안지를 구기거나 훼손하지 마십시오.
Do not fold or contaminate the answer sheet.
5. 답안지의 이름, 수험번호 및 정답의 기입은 HB연필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You must use a medium-soft(#2 or HB) black lead pencil to fill out your
registration form and answer sheet.
6. 정답은 답안지에 정확하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Mark the answer sheet as accurately and clearly as possible.
7. 문제를 읽을 때에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Do not read loud while you read the test questions.
8. 질문이 있을 때에는 손을 들고 감독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raise your hand and wait until the
supervisor/room proctor attends you.
9. 주관식 답안은 답안지 뒷면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Please write the subjective items at the back of the answer sheet.

수험번호 Examinee's Registration Number	
--	--

이름 Name	모국어 Vernacular	
	영문 English	

4급 표현(어휘·문법, 쓰기)
(60문항, 90분)

【1】 ~ 【10】 “어휘·문법” 영역

【1】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뜻의 단어를 고르십시오. (2×3=6)

1. 요즘 서울 근교에는 개성이 없는 아파트 숲과는 달리 집주인의 취향에 따라 예쁘게 단장한 통나무집들이 많습니다.

- | | |
|------|------|
| ① 꾸민 | ② 바꾼 |
| ③ 지은 | ④ 고친 |

2. 최근의 설문 조사에서 콩, 야채, 과일, 생선 등의 소비량이 점차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 |
|--------|--------|
| ① 생기고 | ② 줄어들고 |
| ③ 없어지고 | ④ 늘어나고 |

[3] 밑줄 친 두 단어의 관계가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 (2×3=6)

9. ① 가 : 일이 자꾸 꼬이는 게 아무래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나 : 힘 내세요. 가끔 생각지도 않게 풀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 ② 가 : 요즘 왜 김진호 씨한테 그렇게 찢찢매요?
나 : 얼마 전에 제가 실수를 했거든요. 당분간 그 사람 말은 꼼짝
못하고 들을 수밖에 없어요.
- ③ 가 : 국가 간의 왕래가 많아지면서 전염병이 이웃 나라에까지 확
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 : 맞아요. 얼마 전에도 뇌염이 여러 나라에 번진 일이 있었대요.
- ④ 가 :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고 고민하더니 결국 못 참고 오늘 사
표를 냈다는군.
나 : 혹시 김영수 씨 얘기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 견디는 것 같더
니 좀 아깝네요.

10. ① 가: 이젠 한글도 좀 배울 나이인데 우리 애는 통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나: 우리 애 경우를 보니까 집에서 전혀 안 가르쳐 줘도 자연스럽게 배우더라고요.
- ② 가: 너 마침 잘 만났다.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 만나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는데.
 나: 어렵게 찾아갔는데 하필 손님이 와 계셔서, 기다리다가 그냥 왔어.
- ③ 가: 등록금 때문에 정말 고생했어요. 방학 내내 쉬지도 못하고 일해서 간신히 마련했어요.
 나: 그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전 그랬는데도 모자라서 은행 대출까지 받아 겨우 낸 걸요.
- ④ 가: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한 잔씩 꼭 마시고 있어요.
 나: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체질에 따라서 해로운 사람도 있어요.

[4] 밑줄 친 단어 중에서 잘못 쓰인 것을 찾으십시오. (2×4=8)

11. ① 가 : 유난히 비가 안 오는 것 같아요.
나 : 올해는 기상 이변 때문에 많은 지역에 심한 가뭄이 들 거래요.
- ② 가 : 지도에다 표시까지 해 가지고 가셨으니 이번엔 잘 찾으셨겠죠?
나 : 이번에도 역시 길을 잘못 들어서 30분이나 헤맸어요.
- ③ 가 : 어려운 작업이라 고생하시더니 이젠 시원하시죠?
나 : 시간이 많이 들어서 힘들기는 했지만 끝내고 나니 좀 서운해요.
- ④ 가 : 혹시 일기 쓰세요?
나 :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수첩을 보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것으로 대신해요.
12. ① 가 : 꿈이 천문학자라니 좀 특별한데요.
나 : 우주의 신비를 풀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어요?
- ② 가 : 얘기 못 들었지? 아버지께서 이번 여행은 바다로 가자고 하셨어.
나 : 그렇게 바다에 가자고 노래를 하더니 이제야 소원을 풀겠구나.
- ③ 가 : 아침에 여행 떠나시는 걸 봤는데 벌써 오셨어요?
나 : 도착해서 짐을 풀기도 전에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그대로 올라왔어요.
- ④ 가 : 요즘은 세계 정세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 느낌이예요.
나 : 이제는 단순한 친선 관계를 풀고 좀더 협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5] 다음 ()에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3×5=15)

13. 가 : 연극 포스터로는 색이 너무 강한 거 아니에요?

나 : 사람들의 시선을 () 강한 색을 많이 쓰는 것이 좋아요.

14. 가 : 이번에 해외 지사장으로 나가시게 됐다고요? 좋으시겠어요.

나 : 좋기는 한데 회사에서 기대하는 것이 너무 커서 어깨가
()

15. 가 : 바쁘실 텐데 어느 틈에 이렇게 손이 많이 () 음식을 장만하
셨어요?

나 : 친구가 도와 줬으니까 하지 그 시간에 혼자서는 못 했을 거예요.

[6] 다음 대화 내용에 맞는 속담을 쓰십시오. (1×5=5)

16. 가 : 이거 우리 집 냉장고하고 똑같은 모델인 것 같은데요.

나 : 맞아요. 공간도 넓고 전기도 덜 든다고 해서 저도 똑같은 걸로 샀어요.

가 : 그런데, 새 거라서 그런지 더 좋아 보이네요.

나 : 원래 다른 사람 것은 좋아 보이는 법이에요. ()고 하잖아요?

[9] 다음 밑줄 친 부분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4×3=12)

22. 얼마전 쓰레기 처리장 설치 ①문제로 나라 전체가 시끄러운 적이 있었다. 이제 쓰레기 처리는 한 사회의 ②문제로 넘어 세계적인 ③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환경 관련법을 만들고 있는 ④것으로 알려졌다.
23. ①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주된 수단이 말이므로 ②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예로부터 화는 ③입에서 비롯된다고 하여 신중하고 ④교양 있는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하고 침묵을 귀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24.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물음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대답을 시도할 것이다.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살아라.” ①“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살아라.” “네 ②힘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라.” “바르고 착하게 살아라.” 그러나 ③표현이 다른듯이 의미하는 것이 서로 전혀 다른 것은 아니다. ④비록 말은 서로 다르지만 내용은 결국 서로 상당히 가까운 것이다.
25. ①과거로부터 내려온 가치 있는 문화를 우리는 ‘전통 문화’라고 부른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②높아진 듯하다. 지금 세계는 ③지구촌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까워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만의 전통을 고집하며 홀로 ④떨어졌는 채 살아 갈 수는 없다. 외래의 것이라도 좋다면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그러나 가장 고유한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것을 찾고 사랑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 다음 중에서 문법적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5×3=15)

26. ① 가 : 유학 가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언제 가세요?
나 : 회사 일이 정리되는 대로 갈게요.
- ② 가 : 지난 번처럼 또 약속을 어기면 안 돼.
나 : 알았어. 이번엔 꼭 하라는 대로 할게.
- ③ 가 :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이제 불평 좀 그만해라.
나 : 오늘만 참고 들어주면 설마 내일부터 안 할게.
- ④ 가 : 이번 주말에 답사 여행을 가는데 시간 있으면 같이 갈래요?
나 :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갈게요.
-
27. ① 가 : 저 때문에 불편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군요.
나 :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집처럼 편하도록 계시다가 가세요.
- ② 가 : 영수 씨가 이번에도 승진자 명단에서 빠졌더군요.
나 : 그 사람 정말로 최선을 다하도록 다했는데 운이 없었던 것 같아요.
- ③ 가 : 김 교수님 강의를 들을 만했어요?
나 : 네, 이해하기 쉽도록 슬라이드까지 준비해 보여 주셔서 참 좋았어요.
- ④ 가 : 매번 이렇게 시간을 안 지키면 곤란합니다.
나 : 미안합니다. 오늘은 꼭 일찍 오도록 노력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
28. ① 가 : 큰아이가 입시생이라면서요?
나 : 네, 아이가 공부하느라고 온 가족이 숨소리도 못 낼 정도예요.
- ② 가 : 웬일이세요? 이렇게 늦게 오시게.
나 : 내일 여행을 가느라고 미리 처리할 게 많았어요.
- ③ 가 : 김 부장님이 오늘 출장을 가셨다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 얘기해 보셨어요?

나 : 아니오, 너무 서둘러 떠나시느라고 우린 인사도 못했어요.

④ 가 : 우리 사무실은 이쪽인데 왜 그리로 가세요?

나 : 아이구, 정신이 없네. 오늘 제출할 자료를 정리하느라고 어제 한 잠도 못 잤거든요.

29. ① 가 : 진호 씨는 한번도 늦는 걸 못 봤는데 비결이 뭐예요?

나 : 조금이라도 늦잠을 자거든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깨우세요.

② 가 : 여보세요? 왜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나 : 지금 집이 비어서 그러는데 동생 들어오시거든 바로 가겠어요.

③ 가 : 한 동안 주식 값이 좀 오르는 것 같더니 요즘 왜 이렇게 떨어지지?

나 : 좀 기다려 봐. 오르막길이 있거든 내리막길도 있잖아.

④ 가 : 누가 전화 코드를 빼 봤지?

나 : 제가 그랬어요. 일 좀 하려고 하거든 꼭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서요.

30. ① 가 : 두 분이 다정하게 어디 다녀오세요?

나 : 진호 씨가 오늘따라 우울해하길래 제가 차 한 잔 샀어요.

② 가 : 어려움에 부닥칠 때마다 서로 돕는 모습이 정말 감동스러워요.

나 : 서로 도와야 일이 해결될 수 있길래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하고 있지요.

③ 가 : 그 사람이 널 대하는 태도가 좀 이상하던데.

나 : 내가 전에 부탁을 안 들어 주었길래 그 사람이 널 냉정하게 대하는 것 같아.

④ 가 : 오늘 인사말은 김 선생님이 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나 : 네, 원래 계획은 그랬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셨길래 이 선생님이 하시게 됐어요.

【11】 ~ 【16】 “쓰기” 영역

【11】 밑줄 친 두 문장을 대화에 맞게 연결한 것을 고르십시오. (5×3=15)

31. 가 : 오늘까지 공과금을 내야 하는데 갈 시간이 없으니 큰일났네.
 나 : 저도 은행에 가야 하는데요. 이따가 제가 가겠어요. 내 드릴까요?
- ① 이따가 제가 갈 겸 내 드릴까요?
 - ② 이따가 제가 가다가 내 드릴까요?
 - ③ 이따가 제가 가서라도 내 드릴까요?
 - ④ 이따가 제가 가는 김에 내 드릴까요?
-
32. 가 : 전시회에 간다고 좋아하시더니 구경 잘 하셨어요?
 나 : 말도 마세요. 구경을 못했어요. 발걸음을 옮기기도 힘들었어요.
- ① 구경을 했든 못 했든 발걸음을 옮겨야 했어요.
 - ② 아무리 구경을 못 하더라도 발걸음을 옮겨야 했어요.
 - ③ 구경을 하기는커녕 발걸음을 옮기기조차 힘들었어요.
 - ④ 구경을 못 하고서도 할 수 없이 발걸음을 옮겨야 했어요.
-
33. 가 : 이 자료 어디서 났어요? 저도 전부터 보고 싶었던 건데요.
 나 : 그래요? 진작 말씀하시지요. 몇 부 더 복사해 가지고 올 걸.
- ① 말씀하셨듯이 몇 부 더 복사해 가지고 왔어요.
 - ② 말씀하시면 몇 부 더 복사해 가지고 오겠어요.

- ③ 말씀 안 하셨어도 몇 부 더 복사해 가지고 왔어요.
- ④ 말씀하셨더라면 몇 부 더 복사해 가지고 왔을 텐데요.

34. 가 :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 잘 알아보지도 않고 신고부터 해요? 창피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 ① 잘 알아보지도 않고 신고부터 했다가 창피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 ② 잘 알아보지 않고 신고부터 하더라도 창피를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 ③ 잘 알아보지도 않고 신고부터 했다고 해서 창피를 당할 수는 없어요.
- ④ 잘 알아보지 않고 신고부터 할 건지 창피를 당할 건지 결정해야지요.

35. 가 : 김영수 그 사람은 돈 좀 벌었다고 너무 거만해진 것 같아요. 먼저 인사하는 걸 못 봤다니깐요.

나 : 그래요? 그런데 지난 번엔 나를 봤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인사를 하던데요.

- ① 나를 봤는데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 ② 나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 ③ 나를 봤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인사를 할 수야 있나요?
- ④ 나를 봤으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12】 밑줄 친 문장과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5×3=15)

36. 가 : 그 사람 부모님한테 사업 자금 달라고 야단이래요.

나 :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대요? 한심하기 그지없군요.

- ① 조금은 한심하군요.
- ② 여간 한심하지 않군요.
- ③ 그리 한심하지는 않군요.
- ④ 별로 한심하지는 않군요.

37. 가 : 영수 씨 고민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늘 신나고 즐겁고 그래요?

나 : 전 뭐든지 좋게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세상사가 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 ①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 ② 세상 일이 사람의 마음을 자주 바꿔 놓아요.
- ③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 ④ 모든 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38. 가 : 영수 씨 말에 의하면 기술 지원을 좀 받으면 생산이 가능할 거
라던데요.

나 : 이사회에서 반대하고 있다는데, 영수 씨 혼자만 가능하다고 믿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 ① 어째서 혼자만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 ② 혼자라도 가능하다고 믿으면 될 수도 있겠지요?
- ③ 가능하다고 믿어도 혼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 ④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만은 가능하다고 믿어야 해요.

39. 가 : 이렇게 중요한 일을 김영수 씨에게 맡겨도 될까요?

나 : 저래봐도 얼마나 책임감이 강하고 꼼꼼한데요.

- ① 보시다시피 책임감이 강하고 꼼꼼해요.
- ② 보기와 달리 책임감이 강하고 꼼꼼해요.
- ③ 보기에는 책임감이 강하고 꼼꼼한 것 같아요.
- ④ 보면 볼수록 책임감이 강하고 꼼꼼한 것 같아요.

40. 가 : 난 영수 씨를 처음 봤는데 인상으로 봐서는 아주 딱딱하겠던데요.

나 : 전혀 아니에요. 우리 부서에서 싱거운 소리 잘 하기로는 영수 씨를 따를 사람이 없어요.

- ① 영수 씨가 싱거운 소리를 제일 잘 해요.
- ② 영수 씨 외에는 싱거운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 ③ 영수 씨는 절대로 싱거운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에요.
- ④ 영수 씨는 싱거운 소리를 하는 사람을 잘 따라 다녀요.

【13】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5×3=15)

41. 가 :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오다 가다가 만나는군요.

나 : 글썸 말이에요. _____.

- 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 ② 한 건물에 있으면 당연히 자주 만날 수 있지요.
- ③ 한번 놀러 간다는 것이 그 동안 영 틈이 안 났어요.
- ④ 자주 만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못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42. 가 : 모임 회칙이 대충 만들어졌는데 내용 좀 봐 주세요.

나 : 어디 봅시다. _____.

- ① 회칙이 이렇게 복잡해서야 어디 다 지키겠어요?
- ② 회칙을 만드느니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겠어요.
- ③ 아무래도 회칙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 ④ 회원이면 싫건 좋건 지켜야 하는 게 회칙 아니겠어요?

43. 가 : 어제 진호 씨가 휴학을 했다는데 알고 계세요?

나 : 알고 말고요. _____.

- ① 진호 씨가 휴학을 했다니 그게 정말이에요?
- ② 벌써 오래 전부터 어학 연수를 준비해 온 모양이에요.
- ③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아직 모릅니다.
- ④ 벌써 들은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저는 아직 못 들었어요.

44. 가 : 그 전화기 아직 쓸 만해 보이는데 왜 버려요?

나 : 웬걸요, _____.

- ① 오래 써서 싫증이 나서요.
- ② 재활용 할 수 있게 내 놓는 거예요.
- ③ 걸모양만 그렇지 오래 돼서 잡음이 너무 심해요.
- ④ 아직 좀 더 써도 되는데 새 전화기가 하나 생겨서요.

45. 가 :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소문 났던데 한턱 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 : 말도 마세요. _____.

- ① 절대로 소문 내시면 안 돼요.
- ② 소문이 나면 한턱 내는 건 당연하지요.
- ③ 당첨이 되든 한턱 내든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 ④ 보는 사람마다 그러는 통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14】 밑줄 친 부분에 어울리는 대화를 고르십시오. (5×3=15)

46. 가 : 전화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생활비가 다 들어갔어요.

나 : _____.

가 : 당신이 다시 한번 아이들한테 주의를 주든지 하세요.

나 : 소용없어요. 벌써 몇 번째예요?

- ① 내라는 대로 내다가는 언제 돈을 모으겠어요?
- ② 하루가 멀다 하고 국제통화를 하니 무슨 수로 당하겠어요?
- ③ 그게 아니라 어떻게 다른 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 ④ 요금을 낼 건지 안 낼 건지 당신이 결정하면 그대로 하겠어요.

47. 가 : 시장 조사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나 : 많이 지쳤나 보군. 며칠만에 얼굴이 반쪽이 된 것 같은데.

가 : _____.

나 : 그럼, 내일은 하루 휴가를 줄 테니까 푹 쉬도록 해요.

- ① 그래도 하던 일이니까 마저 끝내야지요.
- ② 이래봐도 건강 하나는 자신할 수 있어요.
- ③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요, 뭐.
- ④ 하루만 더 했다가는 정말 몸살 날 것 같아요.

48. 가 : 여보세요. 서비스 센터지요? 출장 수리를 좀 부탁하려고 하는데요.

나 : 무슨 일이신데요?

가 : 청소기가 사용 도중에 전원이 나가 버렸어요.

나 : 청소기같이 이동이 가능한 제품은 출장 수리가 안 됩니다. 고객께서 직접 가지고 나오셔야겠는데요.

가: _____.

- ① 그렇다고 안 고칠 수는 없잖아요.
- ② 물론 직접 와 주시면야 문제가 없죠.
- ③ 그렇다면 수리하기엔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 ④ 그럼, 서비스 센터 위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49. 가: 짐도 많고 하니까 차가 있으면 이동하기가 편할 것 같아. 영수
한데 차 좀 빌려 봐.

나: _____.

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때 댄 방법을 찾더라도 말은 해 봐야지.

나: 괜히 싫은 소리나 듣는 거 아닌지 모르겠군요.

- ① 빌려 주긴 하겠지만 싫어할 거예요.
- ② 말만 잘 하면 빌릴 수 있을 거예요.
- ③ 물어 보나 마나 안 된다고 할 거예요.
- ④ 말만 하면 틀림없이 좋다고 할 거예요.

50. 가: 고객 상담실이지요? 카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 우선 잃어버린 카드는 사용 정지를 시키시고 새 카드를 신청하
시면 됩니다.

가: _____.

나: 분실 신고 전 15일까지의 사용액에 대해서는 전액 카드 회사에
서 책임을 집니다.

- ① 뭔가 오해가 있는 듯 싶습니다.
- ② 상황이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궁금한데요.
- ③ 재발급을 받자면 벌금을 얼마나 내야 합니까?
- ④ 누군가 카드를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5】 상황에 맞는 대화가 되도록 문장을 고르십시오. (5×4=20)

51.

영수 씨는 이삿짐 센터 직원과 계약을 끝내고 궁금한 것을 확인하고 있다.

영수 : 모두 포장까지 해서 옮겨 주시는 거니까 특별히 제가 할 일은 없는 거지요?

직원 : _____.

- ① 그러다가 오해를 사면 일이 복잡해져요.
- ② 그래도 손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 ③ 그러고 보니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군요.
- ④ 그래도 값나가는 물건은 직접 챙기세요.

52.

앞집 아주머니는 외출할 일이 생겨서 영수 씨에게 아이를 좀 봐 달라고 부탁했다.

아주머니 : 이렇게 번번이 신세만 지고 죄송해서 어찌죠?

영수 : 아유 신세는요. _____.

- ① 이게 뭐 일인가요?
- ② 그저, 제 일인 걸요.
- ③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러세요?
- ④ 어찌다 보니 이런 일까지 하게 됐네요.

53.

영수 씨는 텔레비전 특집 프로그램을 보려고 신문에서 방영 시간을 확인하고 일찍 귀가했다.

영수 : 신문에 9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동생 : _____.

- ① 될 수 있는 대로 신문을 열심히 봐.
- ② 방송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도 있어.
- ③ 누가 알아? 신문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을지.
- ④ 신문 덕분에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54.

설악산 주변 지역을 개발해 이용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영수 씨와 친구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영수 :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친구 : _____.

- ① 좋은 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봐.
- ② 지금이라도 지역 개발을 시작했다니 잘 된 일 아니에요?
- ③ 개발도 좋지만 자연 환경도 함께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
- ④ 이번 계획으로 지역의 자연 환경을 잘 이용할 수 있을 거야.

55.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는 친구를 영수 씨가 위로하려고 한다.

친구 : 요즘 인기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그만두어야 할 것 같아요.

영수 :

- ① 낮 놓고 ‘ㄱ’ 자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낮지요.
- ②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너무 조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 ③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정말 맞네요.
- ④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도 못 들어 보셨어요?

【16】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완성하십시오. (5×4=20)

56. 새해의 의미는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한다는 데 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의 일을 돌아보고 오늘 할 일을 계획한다. 그렇듯이 새해에는 _____.
57.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대개는 그 결과를 예측한 후에 시작한다. 하지만 쉽게 이루어질 것 같던 일도 도중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부딪칠 때가 있다. 반면에 _____.
58. 과거에는 군사적으로 힘이 센 나라가 강대국으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력과 더불어 문화적으로 영향력이 큰 나라가 강대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_____.
59.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그런 인간이 남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한다면 그러한 행동은 인간의 자유가 아니라 동물적 자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를 원하는 인간이라면 _____.
60. 야단을 치거나 때리는 것보다는 터놓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모처럼 아이들과 대화를 해 보려고 해도 말이 안 통할 때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_____.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해와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다시는 회복되기 어려운 관계가 될지도 모른다.